

#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영향요인과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Influence Factors and Performance of Resident Education for Decentralized Autonomy

권자경\*  
Kwon, Ja Kyung

### ■ 목 차 ■

- I. 서론
- II.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참여 및 주민교육의 효능성
- III.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사례
- IV.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실증분석
- V.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발전방향 및 결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민 인식 확대가 중요함에 따라 본 연구자는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성과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강릉시 자치분권 교육의 사례에서는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광역의회, 기초의회, 지역대학, 지역대학의 산학협력단과 링크플러스 사업단, 주민자치조직, 지역언론이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주도로 직접 교육을 설계·디자인하였다. 교육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교육내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강사', '교육기간'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0가지 '교육주제'가 주민교육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종속변수가 '교육기간 만족도'인 모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형으로 채택되었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 '지방재정', '주민참여예산'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발전 방향으로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분권화, 주민교육을 위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주민주도형 교육, 교육내용의 실용화, 주민교육 목표의식 명확화와 동기

\* 강원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부교수

논문 접수일: 2022. 5. 17. 심사기간: 2022. 5. 17. ~ 2022. 6. 23. 게재확정일: 2022. 6. 23.

화를 제안하였다.

□ 주제어: 자치분권, 주민교육

As it was pointed out that it is important to expand national awareness for the realization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study the performance factors and influence factors of revitalization of resident education for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fact, the case of Gangneung-si was examined as an education for local residents on decentralization of self-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s, basic local governments, regional councils, basic assemblies, regional universitie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s of regional universities, Link Plus project groups, local resident autonomous organizations, and local media establish local governance. This local governance directly designed the education led by residents. As an independent variable affecting 'overall satisfaction' with education, 'education content' was analyzed to have the greatest influence, followed by 'instructor' and 'education period', which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effect of 10 'education topics' provided during education on 'satisfaction' of resident education, only the model whose dependent variable was 'satisfaction with education period' was adopted 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l, and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resident sovereignty' was analyz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with the greatest influence, followed by 'Korean local autonomy and Gangwon-do', 'local finance', and 'participatory budgeting' in that order. Based on the above empirical research, the following development tasks were proposed for resident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 1) decentralization of resident education, 2)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ance for resident education, 3) resident-led education, 4) practical application of education content, 5) clarification of resident education goals and motivation.

□ Keywords: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Resident Education

## I. 서론

행정안전부 주민자치지원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교육, 각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주 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주민자치교육, 마을만들기사업 관련 주민교육, 민간교육기관에 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분권대학,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주민교육 등 최근 주민을 대 상으로 한 교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방자치는 대통령 및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 분권위원회 등 중앙정부가 제도를 설계한다고 달성될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지방자치 30여 년 동안 경험해 왔다.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주민이 지역사회 주권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제도부터 시행되면서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제대 로 住民主權이 정착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의 미흡한 부분이 부각되고 더 나아가 중앙집권으 로의 회귀론까지 등장하면서 끊임없이 自治分權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自治分權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는데 그동안 주로 학계 및 정계를 위주로 논의되어온 것에 서 탈피하여 이제는 주민들이 지역내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住 民主權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각종 권력과 자원이 지방에 분권과 분산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추어야 함을 인식하기 위하여 ‘주민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최근 관심이 모아진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원인 주민들의 간절한 욕구와 역량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자치분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각계각층의 요청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분권 교육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민의식 교육 의 중요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또한, 서두에서 밝힌 여러 주민교육 중 하나인 강원 도 강릉시의 주민 대상 자치분권 교육을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강생들의 인식을 조 사하여 주민교육의 영향요인과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실증 결과에 의거하 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교육의 발전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 II.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참여 및 주민교육의 효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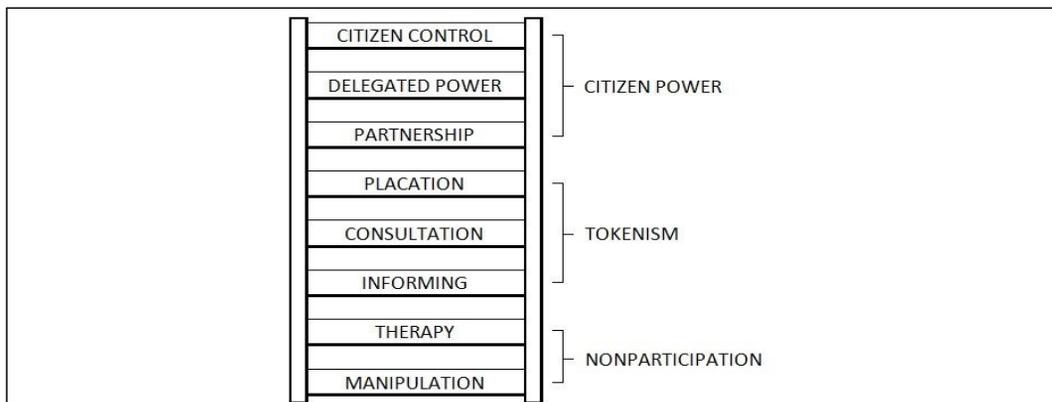
### 1.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참여의 의의

‘自治分權’이란 권력분립(權力分立)과 지방자치(地方自治)의 의미를 합성한 단어이다(자치분권 위원회 2018).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에 수직적으로 분립시키고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정부는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의미를 합하여 자치분권이라 정의할 수 있다. ‘권력분립’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민주권을 지향하게 된다(권자경 2019, 326). ‘주민주권(住民主權)’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으로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 주민이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정책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권자경 2017; 2016).

자치분권은 주민에 의한 인식과 의지로부터 공고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다시 주목된다.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 인식에서부터 사업의 전개, 집행, 전략기획의 관리의 전 과정에 관여한다는 의미이다(Bowen 2008, 65-78). Arnstein(1969, 217)은 주민참여의 수준을 8가지 단계로 나눈다. 주민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인 ‘조작(manipulation)’은 기득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민을 조종하는 단계, ‘처방(therapy)’은 주민을 교정 또는 계몽하는 단계이다. ‘Tokenism(토큰주의)’은 주민참여에서 사회 여러 계층 중 사회적 약자들까지 명목적 또는 형식적으로 포함하는 단계로서, ‘일방적 고지(informing)’는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 ‘의견수렴(consultation)’은 형식적 또는 요식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 ‘주민대표 배치(placation)’는 주민을 달래기 위해 주민대표를 명목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단계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단계는 ‘citizen power(주민권)’ 단계로 ‘파트너십(partnership)’은 주민과 지방정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지역의 정책사업에 대해 계획과 의사결정, 책임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권한위임(delegated power)’은 주민이 지방정부로부터 정책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단계, 마지막으로 ‘주민통제(citizen control)’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정책사업에 주민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단계, 즉 住民自治가 가능한 정도의 단계를 의미한다.

〈그림 1〉 Arnstein의 주민참여의 8단계



출처: Arnstein(1969, 217)

자치분권이 확대되기 위하여 Arnstein(1969)의 8가지 주민참여 수준에서 주민권 단계로서 주민과 지방정부간 파트너십, 주민이 지방정부로부터 지역사안에 대한 정책결정 권한을 위임 받는 것, 주민이 지역사회를 스스로 통치하는 주민자치 또는 주민통제가 가능한 단계까지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주민권은 앞서 언급한 주민주권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주민참여의 고차원적인 단계인 주민주권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 2. 주민교육의 효능성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저명한 이론가인 Tocqueville(1805-59, 2002)은 주민이 통치하는 건강한 민주주의는 자발적 참여 조직과 같은 민주주의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을 교육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인위적인 교육기관이 아닌 마을회의(town meeting)와 같은 주민들의 자발적 회의 및 의사결정이 바로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것이 그의 유명한 주장이다.

주민주권을 시민의식 또는 주민의식(citizenship)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주민의식에 대한 '교육'은 활기차고 덕이 있는 시민문화에 의해 달궈진 적극적, 참여적 주민의식을 민주적 삶으로 새롭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Pratte 1988, 303). 주민의식(citizenship)에 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효능성을 지닌다.

첫째, 주민의식에 대한 교육은 지역사회 민주주의를 향상시킨다.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교육은 민주시민에 대한 이해와 실행을 보다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학습은 주로 커뮤니티를 기반(coommunity-based learning)으로 형성된다. 주민의식(citizenship)은 커뮤니티 회원으로서 공유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민주주의 교육은 단순히 주민의식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식의 가치(value)를 가르친다. 주민의식 교육은 민주주의의 무엇, 어떻게, 왜(what, how and why)를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Mendel-Reyes 1998, 32; Galston 2004, 264; Martens and Gainous 2013).

둘째, 주민의식에 대한 교육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기술을 향상시킨다. 민주주의의 기술에는 비판적인 사고, 주민의 심의, 지역공동체 형성, 집합적 결정이 있다. 1)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는 지역사회 문제제기, 자료수집 및 분석, 집행(안)을 형성·집행·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주민의 심의(public deliberation)는 주민들이 민주적 심의에 참여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주민들은 공공재의 여러 대안 및 대체재를 비교하고 서로 다른 점을 평가하고 다양한 영역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도전을 받게 된다. 3) 지역공동체형성(community

building)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 지역사회 회원인 주민이 비판적 사고를 유지함과 동시에 대중적 심의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관계를 강화시킨다. 4)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은 지역사회 회원인 주민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지하면서 동시에 함께 일을 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유도한다. 주민들은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창조적 긴장(creative tension)'을 나눈다(Mendel-Reyes 1998, 36-38).

셋째, 주민의식에 대한 교육은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로서 주민개인과 지역사회의 독립성(individuality)과 자율성(autonomy)을 확보하게 되어 중국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모여 사회의 다양성(society diversity)을 증진시킨다. 자유민주주의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적절한 교육은 인종, 종교, 성별, 민족을 초월하여 타인에 대해 상호존중(mutual respect)하고 공정(fairness)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 이는 John Rawls(1921-2002, 1971)가 주창한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도 일맥상통한 개념이다. 주민의식 교육을 통해 정치적 자유에 대한 도덕(virtues)과 기술(skills)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확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국에는 주민들간 사회협력(social cooperation)을 이끌어낸다(Gutmann 1995, 557-562, 573, 577-578; Brighouse 1998).

### 3. 선행연구 및 연구분석 틀

자치분권에 대한 전국민 인식 확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자치분권 주민교육에 대한 학술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자치분권은 중앙으로부터의 권력분립과 동시에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 및 지역주민의 역량 향상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주민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주민교육의 필요성이 최근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이와 관련한 학술적 연구는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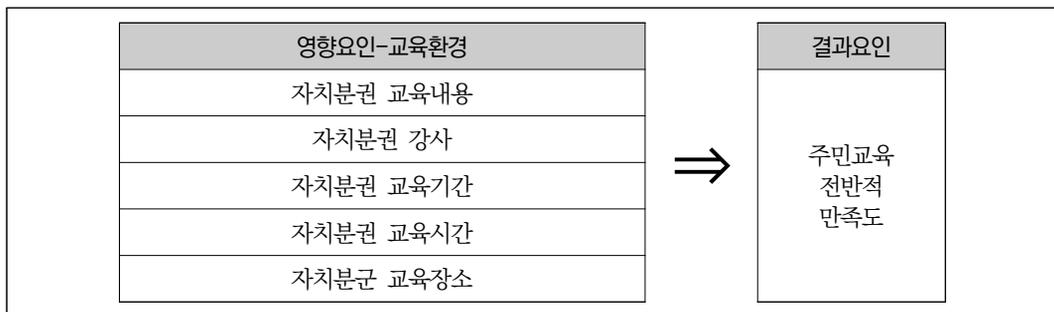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교육은 아니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김혜영·류시영(2011)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 권역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교육에 대한 효과 인식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정석(2016)은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의 방향을 제시, 강대선(2016)은 지역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주민교육이 주민들의 임파워먼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 최수진·김철영(2017)은 주민참여 도시학교를 대상으로 참여구성원 및 역할, 참여목적, 교육내용, 주민참여 방식, 프로그램 결과물, 기타 총 6개 항목에서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시사점을 제시, 정의태 외(2021)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소프트웨어적 사업 중 주민 일자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해 퍼소나를 제작한 연구 등이다.

본 연구는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영향요인과 성과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주민교육의 원인요인과 결과요인에 대해 다른 선행연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Pratte(1988)는 지역사회 주민대상 주민의식 교육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첫째, 강사(educator)는 당면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민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교육의 성과는 강사 및 교육제공기관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둘째, 커리큘럼(curriculum)은 강의내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생존가능한 커리큘럼이야말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초가 된다. 교육프로그램은 또한 주제별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Hunter and Brisbin, Jr.(2003)의 연구에서는 교육 시간(hours)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실증분석의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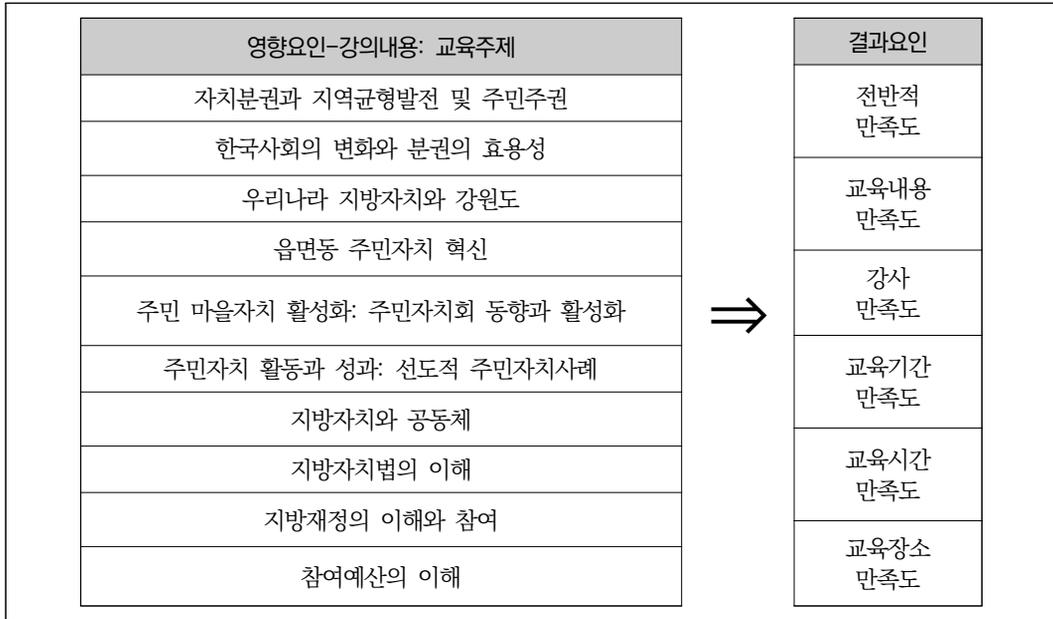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Pratte(1988)와 Hunter and Brisbin, Jr.(2003)의 선행연구들에 바탕을 두어 본 연구는 연구모형을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먼저, <그림 2>의 연구 분석틀 1에서는 결과요인인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육환경’을 원인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교육환경’의 구체적인 변수로는 교육내용, 강사,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장소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Pratte(1988) 등의 연구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특히 교육환경 중 ‘강의내용’이 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강의내용’이 ‘주민교육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의 연구 분석틀 2와 같이 강의내용을 다시 세분화하여 ‘교육주제’를 자치분권과 주민주권, 분권의 효용성, 강원도의 자치분권 현황, 읍면동 주민자치, 마을자치, 주민자치 사례, 마을공동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 참여예산의 10가지로 세분화하였다. 결과요인인 ‘주민교육의 만족도’는 다시 전반적 만족도,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강사에 대한 만족도, 교육기간에 대한 만족도,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 교육장소에 대한 만족도의 6가지로 세분화하였다.

<그림 2> 연구 분석틀 1-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전반적 만족도’와 ‘교육환경’간 인과관계



〈그림 3〉 연구 분석틀 2-자치분권 주민교육의 ‘만족도’와 ‘교육주제’간 인과관계



### Ⅲ.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사례

#### 1. 우리나라 주민교육의 현황

우리나라 현행 주민교육은 중앙부처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기업사업, 도시재생사업, 평생교육사업, 자치분권의식,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을문화육성사업, 여성농업인육성사업, 농촌활성화사업 등을 위해 주민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래 〈표 1〉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중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교육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릉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대상 자치분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국내 주민교육의 유형 및 특징

교육명	대상주민	특징
주민자치위원교육	주민자치위원	전국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교육
마을만들기사업 교육	마을주민	행정안전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마을단위 활성화사업을 위한 주민대상교육
마을공동체 교육	마을주민	행정안전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마을단위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주민대상교육
마을기업학교	마을주민	행정안전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마을단위 기업활동으로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교육
도시재생활학교	마을주민 및 리더	국토교통부 및 해당지방정부의 지원으로 구(원)도심 및 신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교육
평생교육차원 강좌	주민 누구나	각 지방정부별로 지역교육청 및 공무원연수원 등에서 지역주민 누구나 생애주기 평생에 배움의 기회를 제공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예산 및 재정에 대한 교육을 4주-8주 등 각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게 교육
마을 문화강좌	문화소외계층	문화체육관광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는 문화생활이 어려운 농촌, 어촌, 산촌마을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
여성농업인 육성교육	여성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는 농산어촌의 전문 농업경영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교육
농촌교육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는 농산어촌의 교육문화환경개선 개선을 위한 주민교육
자치분권 교육	주민 누구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릉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주민대상 자치분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li> <li>사설기관에서 자치분권 교육, 정치의식 교육</li> </ul>

## 2. (사)자치분권아카데미의 자치분권대학 사례

### 1) 연혁

2001년9월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운동 선언을 시작으로 2003년 대구경북지역에서 분권혁신아카데미가 발족되었다. 2004년10월부터 자치분권 교육과정을 최초 시작하였다. 2017년 (사)대구경북분권혁신아카데미를 (사)자치분권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등 전국 40여개 캠퍼스에서 자치분권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교육기관으로 시작하여 2022년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YouTube)을 동시

에 실시하고 있다(<http://www.autonomyacademy.com/> 검색 2022.06.).

〈표 2〉 (사)자치분권아카데미의 자치분권대학 운영 연혁

2001.09	전국 지식인 2,757명 지방분권운동 선언
2003.04	대구경북분권혁신아카데미 발족
2004.10	자치분권 교육과정 최초 개발
2004.12	분권혁신아카데미 관리자 과정 제1기 수료식
2005.	분권혁신아카데미 교재발생(RISS 등재) 의성군 지방분권 지역혁신리더 양성교육/성주시 분권혁신아카데미/지역혁신 우수사례 혁신투어
2006.12	대구경북분권혁신아카데미 사단법인 출범
2007.04	대구경북분권혁신아카데미, 아시아사이언스파크협회,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MOU체결
2010.12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분권혁신리더 워크숍
2011.06	지방분권세미나(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공동 주최)
2012.05	(사)대구경북분권혁신아카데미, 민주정책연구원 MOU체결
2012.07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6개시 순회 분권아카데미 개최
2013.05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공동 주최)
2013.09	스위스학교 교육과정 개발
2013.11	지방분권 청년 콘서트 개최
2015.08	‘분권대학’ 최초 설립, 대학(학장)체제 수립
2016.10	자치분권대학 온라인, 오프라인 운영체제 수립
2017.01	(사)대구경북분권혁신아카데미→(사)자치분권아카데미 명칭 변경
2017.	2017년 자치분권대학 전국 캠퍼스 운영
2018.	2018년 자치분권대학 전국 캠퍼스 운영
2019.	자치분권대학 학기제 운영체제 수립, 어워드 시행, 2019년 전국캠퍼스 운영

출처: (사)자치분권아카데미 <http://autonomyacademy.com/> (검색 2022.06.)

## 2) 운영체제

자치분권대학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기반으로, 사단법인 자치분권 아카데미와 협력하여 운영된다. 역할분담을 보면 첫째, 자치분권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주로 하는데 교육과정 설계, 학습모델 제공, 연구개발, 강사양성 등이다. 둘째, 사단법인 자치분권아카데미는 행정과 사무기능을 담당한다. 기획행정, 학사지원, 대외홍보, 운영지원 등이다. 셋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자치분권대학 운영에 대한 협력과 교육과정 제안, 현안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의 사무를 하고 있다((사)자치분권아카데미

<http://www.autonomyacademy.com/> 검색 2022.06.).

### 3) 교육프로그램

(사)자치분권아카데미의 자치분권대학은 필수로 자치분권 기본과정, 선택으로 자치분권 전문과정, 특화로 생활자치특화과정을 운영한다. 기본과정은 이론 위주로, 생활자치특화과정은 실무 및 실용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표 3〉 (사)자치분권아카데미의 자치분권대학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필수	자치분권 기본과정	자치분권 사상사, 분권법, 행정학, 재정학
선택	자치분권 전문과정	스웨덴학교, 스위스학교, 희망경제학교, 인문학학교, 주민자치학교
특화	생활자치 특화과정	백년정원학교, 진디학교, 시민조경학교, 산림경영학교, 도시재생학교, 건축학교, 한옥학교, 온돌학교, 모듬살이학교, 양봉학교, 곤충학교, 우리물고기학교, 전통주학교, 허준약초학교, 효소학교, 꽃차학교, 스웨덴학교, 생명사랑학교, 건강도시학교, 백세건강학교, 축제학교, 생태부모학교, 햇살가득어울림행복학교, 행복드림건강마을학교, 나눔학교, 초록씨앗학교, 공동육아공동체학교, 마을기록학교, 캠핑학교, 맥주학교, 와인학교, 릴레이공감학교, 한국경제학교, 인문학학교, 창업학교

출처: (사)자치분권아카데미 <http://autonomyacademy.com/> (검색 2022.06.)

### 3. 지역MBC 공동기획-‘자치분권으로 꿈꾸다’사례

2019년 전국 16개 지역MBC방송국들(강원영동, 안동, 대전, 여수, 전주 등)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前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을 총장으로 추대하여 지역방송과 온라인매체를 통해 ‘자치분권으로 꿈꾸다’의 자치분권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는 특정한 장소에 모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방송과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간을 뛰어넘는 교육방식으로, 전국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 당시 여타 다른 교육방법들과 차별되는 점이었다. 1회당 강의시간은 약 45분 정도이다. 전국적으로 방송과 온라인매체를 통한 비대면 교육의 효과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코로나시대 이전에 이미 온라인수업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코로나시대를 예비할 수 있게 해 준 시의 적절한 교육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표 4〉 지역MBC 공동기획-‘자치분권으로 꿈꾸다’교육주제의 예

자치분권으로 꿈꾸다
주민주권의 주민시대: 자치분권의 주체
어울림과 기쁨의 원천, 공동체에서 시작하는 자치분권
지방분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지방자치란? 자치분권은 왜 필요한가?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분권화의 성공조건과 정부의 역할
한국역사속의 자치전통과 문화
헌법과 지방자치의 관계
자치분권과 4차산업혁명
자치분권과 지역언론

출처: YouTube방송 조사(방송날짜 순서 무관)

#### 4. 강릉시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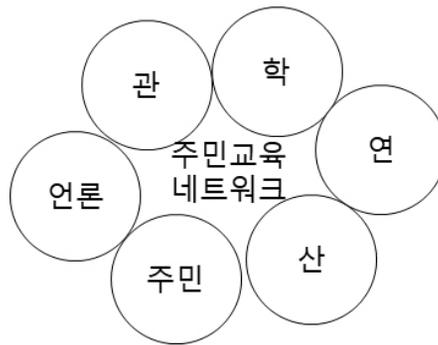
강릉시도 자치분권 주민교육도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지방정부-지역대학-지역산업체-주민-지역언론과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주도형으로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기획하고 전 과정을 관리한 사례이다.

##### 1) 로컬거버넌스 구축

2019년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는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릉시 주민자치협의회와 협의, 기획을 시작하였다. 먼저, 자치분권 인식확대를 위한 주민교육을 위해 지역내 로컬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 첫째, 官(정부)분야로 강원도 자치분권위원회와 강릉시는 주민교육사업에 대한 계획을 심의, 관리감독, 결산심사, 예산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강원도의회와 강릉시의회는 교육에 직접참여, 축사 및 격려의 역할로 참여하였다. 둘째, 學(교육)분야에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교육기관으로 학교장 및 주요보직자의 축사 및 참여, 수료증 제작 및 수여, 교육장소 제공의 역할을하였다. 셋째, 研(연구)분야에서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는 교육프로그램 기획, 교육강사 섭외, 교육내용 체계화를 담당하였다. 넷째, 産(산업체)분야로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링크플러스산업단이 교육장소 세팅 및 강원도와 강릉시의 예산을 관리 및 집행, 교육을 수강하는 주민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

다. 다섯째, 住民(주민)분야는 강원도 및 강릉시민이 교육의 직접적인 수강대상으로 홍보는 강원도 전역에 실시되었으나 지리적·시간적 여건 상 주로 강릉시민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인근지역의 양양군, 동해시 등에서 일부 참여하였다. 강릉시민의 참여를 보다 조직화하기 위하여 강릉시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읍면동협의회가 핸드폰문자발송, 공문 등의 형태로 교육을 홍보, 수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인하였다. 여섯째, 言論(언론)분야에서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가 지역언론으로 자치분권교육의 필요성에 동참하여 본 교육에 대한 수강생모집부터 진행상황, 성과교류회 등을 기사화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강원도민일보 2019.8.28.; 2019.8.30.; 2019.9.20.; 2019.11.25.; 머니투데이 방송 2019.8.30.).

〈그림 4〉 자치분권 주민교육 거버넌스



- 官 -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의회, 강릉시의회
- 學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 研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 産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링크플러스사업단
- 住民 - 강릉시 주민자치협의회, 강릉시 주민자치위원회,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강릉시 읍면동협의회, 강릉시민, 일부 강원도민
- 言論 -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 2)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개요

이상의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한 후 여섯 행위자들은 쌍방향 의사소통을 위해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기획회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자치분권 주민교육을 실시하였다. 2019년8월29일 입학식을 시작하여 매주 목요일 저녁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10주간의 교육으로 11월14일까지 진행하였다. 강원도민 및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입학식 전 300여 명이 수강

신청을 하였는데 이 중 70% 이상 수강한 자를 수료대상자로 선정하고 집계한 결과 15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표 5〉 읍면동별 교육 수료 현황

(단위: 명)

구분	강남동	교1동	교2동	성덕동	구정면	내곡동	성산면	연곡면	사천면	옥천동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포구1동	포구2동	송정동	초당동	흥제동	경포동	왕산면	협의회	예산위원회	총
수료자(명)	11	15	9	6	14	15	4	4	2	4	9	3	10	7	17	3	13	4	1	2	5	158

교육주제는 1)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권: 정치철학의 효과적 조화, 2) 한국사회의 변화와 분권의 효용성, 3)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 4) 읍면동 주민자치 혁신, 5) 우리나라 주민 마을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 동향과 대응을 중심으로, 6) 주민자치 활동과 성과: 선도적 주민자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7) 지방자치와 공동체, 8) 지방자치법의 이해, 9) 지방재정의 이해와 참여, 10) 주민참여예산 이해하기로 구성하여 자치분권 의식 함양을 도모하였다.

강릉시 자치분권 주민교육은 2019년 제1회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갑작스런 COVID-19 팬데믹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지 못했고, 2021년에는 실시간 온라인 줌미팅으로 읍·면·동 마을단위로 지역의 공공이슈 및 자원을 발굴, 해결과제를 토론하는 과정으로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IV.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실증분석

###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상의 우리나라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자치분권 주민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위 사례 중 단일지역에서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주도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우수사례로 판단된 강릉시 사례를 실증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수강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2019년 강릉시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신청자 300여 명 중 158명이 수료하였고, 전체 교육이 종료되고 수료자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강신청자 300명 중 158명이 수료하였는데, 이 중 108명이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부실한 답변들을 제외하고 유효한 응답은 103명으로 집계되었다. 만족도에 대해 5점 리커트 등간척도로 조사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평균값을 알아보는 기초통계와 인과관계를 알아보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2. 기초통계 결과

자치분권 주민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만점 기준으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값 3.95점, 교육내용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동일하게 3.93점으로 나타났다.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에서 실시한 교육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4.15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표 6> 자치분권 주민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기초통계(5점 척도)

번호	설문내용	5점 만점	표준편차
1	자치분권 교육 전반적 만족도	3.95점	0.733
2	자치분권 교육내용 만족도	3.93점	0.718
3	자치분권 강사에 대한 만족도	3.93점	0.757
4	자치분권 교육기간(10주)에 대한 만족도	3.70점	0.838
5	자치분권 교육시간(저녁 7-9시)에 대한 만족도	3.28점	0.883
6	자치분권 교육장소(강의실)에 대한 만족도	4.15점	0.720

강의내용 중 가장 좋았던 주제를 조사한 결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가 23.6%(50개)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권'에 대한 주제가 13.7%(29개)로 두 번째, '한국사회의 변화와 분권의 효용성' 주제가 10.4%(22개)로 세 번째로 조사되었다.

〈표 7〉 가장 좋았던 강의 주제 선정(2개 선택)

(단위: 개)

번호	설문내용	빈도	비율(%)
1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권 ( $X_6$ )	29	13.7
2	한국사회의 변화와 분권의 효용성( $X_7$ )	22	10.4
3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 $X_8$ )	50	23.6
4	읍면동 주민자치 혁신( $X_9$ )	17	8.0
5	주민 마을자치 활성화( $X_{10}$ )	18	8.5
6	주민자치 활동과 성과( $X_{11}$ )	9	4.2
7	지방자치와 공동체( $X_{12}$ )	18	8.5
8	지방자치법의 이해( $X_{13}$ )	15	7.1
9	지방재정의 이해와 참여( $X_{14}$ )	16	7.5
10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X_{15}$ )	18	8.5
합계		212	100.0

### 3.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영향요인과 성과 간 인과관계

#### 1) 교육환경과 전반적 만족도 간 인과관계

상 위 〈그림 2〉 연구분석 틀 1에 근거하여 ‘교육환경’이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간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alpha$ 값이 0.883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높은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표 8〉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전반적 만족도’와 ‘교육 환경’간 회귀분석 결과

구분-교육 환경	〈모형 1〉 전반적 만족도( $Y_1$ )		
	표준화계수 $\beta$	t-value	유의확률
상수		.700	.486
자치분권 교육내용( $X_1$ )	.406***	4.350	.000
자치분권 교육강사( $X_2$ )	.259***	3.028	.003
자치분권 교육기간( $X_3$ )	.168**	2.351	.021
자치분권 교육시간( $X_4$ )	.059	.815	.417
자치분권 교육장소( $X_5$ )	.098	1.314	.192
<i>Adjusted R<sup>2</sup></i>		0.673	
<i>F-value(sig.)</i>		42.924***	

값: 표준화계수( $\beta$ )

( ): t-value

\*  $p < 0.1$ , \*\*  $p < 0.05$ , \*\*\*  $p < 0.01$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교육환경'을 독립요인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을 다시 교육의 내용, 강사, 기간, 시간, 장소의 5가지 변수로 세분화하였다.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 위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내용( $X_1$ )'이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  $\beta$ 가 0.406으로 종속변수 '전반적 만족도( $Y_1$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교육강사( $X_2$ )'도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분석되었고 표준화계수  $\beta$ 는 0.259로 종속변수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기간( $X_3$ )'은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표준화계수  $\beta$ 는 0.168로 종속변수에 세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교육시간( $X_4$ )'과 '교육장소( $X_5$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 2) 교육주제와 교육만족도 간 인과관계

상 위 <그림 3> 연구분석 틀 2에 근거하여 '교육주제'가 '주민교육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독립변수들간 신뢰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  $\alpha$ 값이 0.683으로 측정도구들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인과관계분석을 위해 최소자승법(OLS)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첫째, <모형 2>는  $R^2$ 가 28.4%(F값 0.85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춘 모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개 회귀분석의 선행연구들에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인과관계 유무 및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는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도 인과관계 유무 및 영향력의 정도를 해석하고자 한다.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전반적 만족도( $Y_2$ )'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교육주제 중 '지방재정의 이해와 참여( $X_{14}$ )'가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표준화계수  $\beta$ 가 0.397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권( $X_6$ )'은 유의수준 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계수  $\beta$ 는 0.365으로 두 번째로 종속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읍면동 주민자치 혁신( $X_9$ )'은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표준화계수  $\beta$ 는 0.345으로 세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X_{13}$ )'는 유의수준 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표준화계수  $\beta$ 는 0.304의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원인변수로 도출되었다.

〈표 9〉 자치분권 주민교육 ‘만족도’와 ‘교육주제’ 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교육주제	종속변수					
	〈모형 2〉 전반적 만족도( $Y_2$ )	〈모형 3〉 교육내용 만족도( $Y_3$ )	〈모형 4〉 강사 만족도( $Y_4$ )	〈모형 5〉 교육기간 만족도( $Y_5$ )	〈모형 6〉 교육시간 만족도( $Y_6$ )	〈모형 7〉 교육장소 만족도( $Y_7$ )
상수	(5.097)***	(6.115)***	(4.569)***	(2.529)**	(3.495)***	(7.710)***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권( $X_6$ )	.365* (1.852)	.243 (1.230)	.394** (2.034)	.739*** (3.988)	.344* (1.762)	-.061 (-.310)
한국사회의 변화와 분권의 효용성( $X_7$ )	.219 (1.225)	.015 (.082)	.208 (1.185)	.450*** (2.675)	.225 (1.295)	-.156 (-.868)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 $X_8$ )	.329 (1.551)	.162 (.761)	.437** (2.094)	.703*** (3.520)	.508** (2.410)	.108 (.505)
읍면동 주민자치 혁신( $X_9$ )	.345** (2.035)	.289* (1.701)	.380** (2.301)	.386** (2.448)	.336** (1.986)	.064 (.372)
주민 마을자치 활성화( $X_{10}$ )	.202 (1.161)	.136 (.778)	.244 (1.420)	.426** (2.597)	.366** (2.106)	-.079 (-.453)
주민자치 활동과 성과( $X_{11}$ )	.177 (1.242)	-.013 (-.090)	.218 (1.558)	.331** (2.466)	.094 (.659)	-.052 (-.364)
지방자치와 공동체( $X_{12}$ )	.272 (1.592)	.147 (.856)	.258 (1.531)	.487*** (3.064)	.309* (1.842)	-.057 (-.329)
지방자치법의 이해( $X_{13}$ )	.208 (1.245)	.066 (.398)	.299* (1.818)	.513*** (3.264)	.351** (2.109)	-.003 (-.018)
지방재정의 이해와 참여( $X_{14}$ )	.397** (2.400)	.173 (1.040)	.454*** (2.784)	.606*** (3.881)	.377** (2.280)	.023 (.137)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X_{15}$ )	.304* (1.781)	.146 (.856)	.365** (2.172)	.543*** (3.379)	.379** (2.264)	-.104 (-.604)
$R^2$	.284	.276	.339	.437	.330	.257
$F$ -value(sig.)	.850	.798	1.247	2.263**	1.151	.687

값: 표준화계수( $\beta$ )

( ): t-value

\*  $p < 0.1$ , \*\*  $p < 0.05$ , \*\*\*  $p < 0.01$

둘째, 〈모형 3〉의  $R^2$ 는 27.6%( $F$ 값 0.798)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모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인과관계성 및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내용 만족도( $Y_3$ )’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교육주제 중 ‘읍면동 주민자치 혁신( $Y_2$ )’이 유일하게 표준화계수  $\beta$ 가 0.289로 유의수준 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상당수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로 실제 읍면동 주민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자들이었다. 교육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도 있고 동시에 이

주제에 동기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모형 4>의 설명력을 알려주는  $R^2$ 가 33.9%(F값 1.247)로, 학자들마다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긴 하나  $R^2$ 가 30% 이상이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채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인과관계 및 독립변수들의 영향력 정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 ‘강사 만족도( $Y_4$ )’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지방재정의 이해와 참여( $Y_2$ )’가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며 표준화계수  $\beta$ 가 0.454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채택되었다. 다음 순서 대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 $X_8$ )’가 표준화계수  $\beta$ 가 0.437,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권( $X_6$ )’은 표준화계수  $\beta$ 가 0.394, ‘읍면동 주민자치 혁신( $X_9$ )’은 표준화계수  $\beta$ 가 0.380,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X_7$ )’은 표준화계수  $\beta$ 가 0.365 순으로 모두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의 이해( $X_{13}$ )’는 표준화계수  $\beta$ 가 0.299로 유의수준 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검증되었다.

넷째, <모형 5>는 ‘교육주제’와 ‘교육기간 만족도( $Y_5$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모형의 설명도를 나타내주는  $R^2$ 가 43.7% (F값 2.263)로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모형으로 채택가능하다. 2019년 강릉시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교육기간은 10주간이었지만 이 기간동안 추석연휴와 공휴일이 있어 2주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쉬었던 기간을 합하면 총 기간이 12주간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된 셈이다. 수강생들이 실제 10주의 교육기간이 매우 길게 느껴졌다는 의견을 평상시에도 자주 제기하였고 서면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응답자가 불만을 제기하였다. 긴 교육기간에 대한 불만은 이 변수에 대한 관심도로 반영된 듯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교육기간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주제’간 인과관계모형이 채택되었다.

또한, 주목할 점은 10개의 교육주제 독립변수 모두가 종속변수 ‘교육기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향력이 큰 독립변수부터 나열하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권( $X_6$ )’의 표준화계수  $\beta$ 가 0.739,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 $X_8$ )’의 표준화계수  $\beta$ 가 0.703, ‘지방재정의 이해와 참여( $X_9$ )’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606,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X_7$ )’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543, ‘지방자치법의 이해( $X_8$ )’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513, ‘지방자치와 공동체( $X_{12}$ )’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487, ‘한국사회의 변화와 분권의 효용성( $X_7$ )’의 표준화 계수  $\beta$ 는 0.450으로, 모두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서로는 ‘주민 마을자치 활성화( $X_{10}$ )’, ‘읍면동 주민자치 혁신( $X_9$ )’, ‘주민자치 활동과 성과( $X_{11}$ )’로 모두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들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모형 6>도 모형의 설명도를 나타내주는  $R^2$ 가 33.0%(F값 1.151)로 앞의 <모형 4> 처럼 학자들마다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긴 하나  $R^2$ 가 30% 이상이면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종속변수 ‘교육시간 만족도( $Y_6$ )’에 총 8개의 독립변수가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채택되었는데 이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우리나라 지방

자치와 강원도( $X_8$ )'로 표준화계수  $\beta$ 는 0.508로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 다음 순서로는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X_8$ )'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379, '지방재정의 이해와 참여( $X_{14}$ )'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377, '주민 마을자치 활성화( $X_{14}$ )'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366, '지방자치법의 이해( $X_{13}$ )'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351로 모두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는 순서대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주권( $X_8$ )'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344로 유의수준 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읍면동 주민자치 혁신( $X_8$ )'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336으로 유의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지방자치와 공동체( $X_{12}$ )'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309로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모형 7>의 종속변수 '교육장소 만족도( $Y_7$ )'와 독립변수 교육주제간 인과관계에 대한 모형은 설명도를 나타내주는  $R^2$ 가 25.7%(F값 0.687)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 중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수도 도출되지 못하였다.

## V.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발전방향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 중 최근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주도형으로 교육이 설계된 우수사례로 회자되는 강릉시 사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육 수료생들에게 만족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교육환경과 만족도 간 인과관계, 교육주제와 만족도 간 인과관계를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강릉시의 단일 사례를 대상으로 나타난 실증분석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인 경향 차원에서 향후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분권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중 <표 7>에서 가장 좋았던 강의 주제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라는 주제가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강의내용도 강원도 및 강릉시의 특성과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들로 수강생들의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 4>의 '강사 만족도( $Y_4$ )'와 <모형 5>의 '교육기간 만족도

(Y<sub>3</sub>)에서 모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교육주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X<sub>3</sub>)’로 분석되었다. <모형 6>의 ‘교육시간 만족도(Y<sub>6</sub>)’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X<sub>3</sub>)’주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서두와 한국 자치분권 및 주민교육에 관한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교육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교육의 경우 행정안전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민간기관까지 다소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여 일부에서는 어느 한 교육기관에서 모아서 전국적으로 교육컨텐츠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자치분권아카데미의 자치분권대학은 전국적인 강사가 각 지역별 캠퍼스를 돌면서 강연을 하는 형태여서 해당 지역 맞춤형 주제로 교육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어렵다. 지역MBC 공동기획 자치분권대학-‘자치분권으로 꿈꾸다’도 전국적 내용으로 방송 송출되고 있어 어느 한 지역의 맞춤형 교육이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자치분권 주민교육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획일적, 천편일률적으로 제공한다면 과연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과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육내용과 주제를 제공한다면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나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가? 자치분권의 기본 정신을 주민교육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지역별로 분권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사례분석 대상 강릉도민 및 강릉시민들도 강원도와 강릉시를 주제로 한 강연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듯이, 지역마다 분권화된 주민교육을 통해 그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마다 특색있는 맞춤형 지방자치 교육이 제공되면 주민들은 스스로 지역의 이슈를 발굴해 내고 지역만의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별로 맞춤형 해결책이 모아진다면 전국적 차원에서는 다양성이 증대될 것이다. 다양한 지역의 특색과 욕구를 잘 반영한 교육이 곧 지방의 경쟁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마다 다양한 교육기관이 그 지역과 주민에 적합한 내용과 주제로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교육의 효과는 증가한다는 것을 본 실증연구결과 얻을 수 있었다.

## 2. 주민교육을 위한 로컬거버넌스 구축

본 연구에서 다룬 강릉시 사례는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 등 상급정부에서 Top-down으로 시작된 교육이 아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와 지역주민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우연한 기회에 의지를 다지고 추진하게 되었다. 주민교육에 대한 모든 일정, 내용, 주민홍보, 예산확보 및 집행·결산 등의 전 과정을 공동으로 기획·준비하면서 강릉시에 적합한 자치분권 주민교육을 디자인하였다. 지역대학과 지역주민의 아이디어와 의지를 반영하여 지역내 더 많은 행위자들을 결집시키는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앞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官에서는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의회, 강릉시의회의 예산지원 및 참여, 學에서는 지역내 국립강릉원주대학교의 장소제공, 수료증 제작 및 수여, 研에서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의 교육주제 선정 및 강사섭외, 産에서는 동 대학 산학협력단과 링크플러스산업단에서 강원도와 강릉시에서 지원한 예산의 집행을 관리, 교육장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장 중요한 핵심 행위자인 住民에는 강릉시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읍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조직들이 조직차원에서 다수 참여하였고 이들에게서 파생되어 일반 강릉시민의 참여가 독려되었다. 言論에서는 지역언론으로 강원도민일보가 주민교육에 대한 수강생모집부터 개회식, 중간 진행상황, 폐막식 및 성과교류회 등 전 과정마다 기사화하여 자연스럽게 모집·홍보·성과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수강하지 못한 강원도민 및 강릉시민들에게도 자치분권의 인식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보통 강의식·주입식·전달식 교육은 회차를 거듭할수록 수강생들의 참여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마련이며, 소그룹 간 교류나 수강생들 간 친밀도가 없이는 끝까지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 지역 내 풀뿌리주민조직들을 활용하여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 조직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한다면 소그룹 간 친밀도도 향상되고 원활하게 교류도 잦아져 자연스럽게 교육에의 참여율이 상승하게 된다. 앞의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읍면동별 교육 수료 현황에서 300여명 수강신청 중 70% 이상 교육에 출석한 주민이 158명으로 집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3개월간 긴 교육기간 동안 이렇게 높은 수료율은 보인 것은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네트워크내 유대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교육이 되기 위해 한번 구축된 로컬거버넌스는 주민조직들의 임원들이 교체되어도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교육이 장기적으로 매년 개최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여러 주민조직들을 조직화하고 면담하고 의견들을 반영하여 심의(deliberation)를 이뤄내면 주민들 간 믿음과 신뢰, 상호호혜하는 규범이 형성된다. 처음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구축된 로컬거버넌스는 자치분권 주민의식의 확대 및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3. 주민주도형 교육

강원도민과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자치분권 주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어느 한 주민조직이나 행위자에게 주도권이 집중되어 권력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특정 주민조직이나 리더들이 독임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앞의 <표 6>, <표 7>, <표 8>, <표 9>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수많은 회의 및 수시 의견교환 등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교육내용 및 주제’, ‘교육강사’, ‘교육시간’, ‘교육기간’, ‘교육장소’ 등을 결정하였다. 강사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분으로 최대한 섭외하였다. 개회식 및 폐회식, 수료자들의 자격, 수료증 부여 주체, 성과교류회 등 각 순서마다 로컬거버넌스를 구심점으로 주민들이 교육의 전 과정을 직접 디자인하였다. 이렇듯 주민이 주도하는 교육은 매주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발하였고, 직접 전 과정을 기획·디자인한 주민들이 중도에 이탈하는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만약 지역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강사를 섭외하였다면 주민 홍보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수강생 모집도 어려웠고, 수료자도 많지 않았을 것이며, 최종 자치분권 인식확대라는 목표달성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과정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민들의 책임의식도 향상되어 최종 교육의 성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주민주도형 교육이야말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하는 또다른 예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주민주도형 교육은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찾아내고 스스로 자원을 동원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 自治로 연결될 것이다.

### 4. 교육내용의 실용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표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Y_1$ )’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교육을 둘러싼 환경 중 ‘교육내용( $X_1$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그 다음으로 ‘교육강사( $X_2$ )’, ‘교육기간( $X_3$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수가 도출되었다. ‘교육시간’과 ‘교육장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못하였다.

‘교육내용’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주제 중 어떤 주제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R^2$ 가 30.0% 이상인 모형으로 <모형 4>, <모형 5>, <모형 6>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 $X_8$ )’ 교육주제는 ‘강사 만족도( $Y_2$ )’가 종속변수인 <모형 4>와 ‘교육기간 만족도( $Y_3$ )’가 종속변수인 <모형

5)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교육시간 만족도( $Y_6$ )'가 종속변수인 <모형 6>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방재정의 이해와 참여( $X_{14}$ )' 교육주제는 '강사 만족도( $Y_4$ )'가 종속변수인 <모형 4>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교육기간 만족도( $Y_5$ )'가 종속변수인 <모형 5>와 '교육시간 만족도( $Y_6$ )'가 종속변수인 <모형 6>에서 모두 세 번째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도출되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X_{15}$ )' 교육주제는 '강사 만족도( $Y_4$ )'가 종속변수인 <모형 4>에서 다섯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며, '교육기간 만족도( $Y_5$ )'가 종속변수인 <모형 5>에서는 네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며, '교육시간 만족도( $Y_6$ )'가 종속변수인 <모형 6>에서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강원도( $X_8$ )', '지방재정의 이해와 참여( $X_{14}$ )',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X_{15}$ )'가 '강사 만족도( $Y_4$ )', '교육기간 만족도( $Y_5$ )', '교육시간 만족도( $Y_6$ )'에 공통적으로 상위 순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나타난 것이다. 이 세 교육주제들의 공통점은 교육내용이 실용적이라는 것을 꼽을 수 있겠다. 실용적인 주제들에서 교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치분권 주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확대라는 것을 당초 교육을 설계할 때 설정하였지만, 수강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는 실용적인 주제들에서 유의하다고 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제공자와 수혜자의 同床異夢이 드러날수록 교육의 효과는 절감된다. 교육은 수혜자들이 얼마만큼 교육 前後로 변화가 일어났는지로 최종 결과물을 판가름할 수 있다. 본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정부예산, 재무, 강원도의 현실, 지방자치법 등 실용적인 주제를 주민들은 더욱 선호하고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니 이러한 실용적인 주제들로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보다 너무 이론적인 부분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용적인 주제를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요구된다. 강의식 수업을 대폭 줄이고 문제해결형,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현장견학, 체험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마을단위별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지역의 자원을 발굴, 문제해결책을 제안하는 체험적, 실용적, 실천적 교육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앞의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자치분권이카데미의 자치분권대학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중 생활자치 특화과정의 백년정원학교, 잔디학교, 맥주학교, 축제학교, 허준약초학교, 한옥학교, 온돌학교, 양봉학교, 곤충학교, 전통주학교 등은 실용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교육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5. 주민교육 목표의식 명확화 및 동기화

본 실증분석 결과 <표 9>에서 <모형 4>, <모형 5>, <모형 6>을 중심으로 '강사 만족도( $Y_1$ )', '교육기간 만족도( $Y_2$ )', '교육시간 만족도( $Y_3$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주체들은 대개 실용적, 실무적 주제들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온 이유를 추적해 보면, 수강생들의 특성이 강릉시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읍·면·동협의회 등의 자치조직들에 소속이 된 주민들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주민조직들에 소속되지 않은 순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주민자치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강릉시 예산으로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해야만 위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매년 지방재정 및 예산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위원으로 선발되어 활동할 수 있다. 본 자치분권 주민교육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와 같은 목표의식 및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실용적인 주제 중에서도 지방재정, 지방자치법,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주민자치와 같은 교육주체들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제들로 채택이 된 것은 바로 수강생 주민들의 목표의식 및 동기의식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면 먼저 주민들이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목표의식이나 동기가 없는 주민들은 선뜻 주민교육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기 쉽지 않고 또한 끝까지 수료하기도 어렵다. 주민교육이 실시되기 이전에 수강생들은 교육의 목표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기의식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측은 수강생들의 목표의식과 동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매 수업마다 강의목표와 성과를 공지하여 간략하게 알려주고, 본 연구에서처럼 수강생들의 만족도조사, 교육에 대한 성과교류회, 평가회 등을 열어 환류 피드백 과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대선. (2016). 지역조직화 프로그램의 조직적임파워링특성과 개인적임파워먼트 간 프로그램유형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연구-지역사회복지관의 주민교육과 주민복지프로그램 비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9(2): 117-142.
- 권자경. (2019).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안) 제안 주체별 비교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2): 325-351.
- 권자경. (2017).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주권강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1): 217-239.
- 권자경. (2016).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주민주권 강화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2): 135-162.
- 김혜영·류시영. (20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민교육에 대한 효과인식이 사회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13(3): 74-88.
- 이정석. (2016). 원도심 활성화 역량 결집 위해 주민참여형 교육 반드시 필요해. 「부산발전포럼」, (05+06): 66-75.
- 정의태·표해운·조순옥. (2021). 퍼소나 기법을 이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민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개발.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20(3): 57-73.
- 최수진·김철영. (2017). 주민주도계획 수립을 위한 스튜디오형 주민학습 프로그램의 특성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 주민참여 도시학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8(6): 5-16.
- Arnstein, Sherry Phyllis.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35(4): 216-224.
- Bowen, Glenn A. (2008). An Analysi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Anti-poverty Programme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3(1): 65-78.
- Brighouse, Harry. (1998). Civic Education and Liberal Legitimacy. *Ethics*, 108(4): 719-745.
- Galston, William A. (2004). Civic Educa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7(2): 263-266.
- Gutmann, Amy. (1995). Civic Education and Social Diversity. *Ethics*, 105(3): 557-579.
- Hunter, Susan and Richard A. Brisbin, Jr. (2003). Civic Education and Political Science: A Survey of Practice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6(4): 759-763.
- Martens, Allison M. and Jason Gainous. (2013). Civic Education and Democratic Capacity: How Do Teachers Teach and What Works?. *Social Science Quarterly*, 94(4): 956-976.
- Mendel-Reyes, Meta. (1998). A Pedagogy for Citizenship: Service Learning and

- Democratic Education. *New Direc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73(Spring): 31-38.
- Pratte, Richard. (1988). Civic Education in a Democracy. *Theory Into Practice*, 27(4): 303-308.
- Rawls, John.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Tocqueville, Alexis de(Author), Harvey C. Mansfield and Delba Winthrop(Translator). (2002). *Democracy in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alling, Donovan R. (2007). The Return of Civic Education. *Phi Delta Kappa International*, 89(4): 285-289.

- 강원도민일보. (2019.08.28.). 내일 강릉시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최.
- 강원도민일보. (2019.08.30.). 국내 지방자치 전문가 강의 듣는다.
- 강원도민일보. (2019.09.20.). 강릉시 자치분권 아카데미.
- 강원도민일보. (2019.11.25.). 강릉원주대 자치분권아카데미 주민 158명 수료.
- 머니투데이 방송. (2019.08.30.). 제1기 강릉시 자치분권 아카데미 개강.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https://www.pcad.go.kr> (검색 2021.5.)
- (사)자치분권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autonomyacademy.com/> (검색 2022.6.)
- YouTube. MBC강원영동. 전주MBC. 박원순. 자치분권으로 꿈꾸다.
- YouTube. MBC강원영동. 김순은. 주민주권의 주민시대: 자치분권의 주체.
- YouTube. MBC강원영동. 이종수. 어울림과 기쁨의 원천, 공동체에서 시작하는 자치분권.
- YouTube. MBC강원영동. 소진광. 지방분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
- YouTube. 여수MBC. 소진광, 손우정. 지방자치란? 자치분권은 왜 필요한가?
- YouTube. 대전MBC. 이향수. 김찬동.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 YouTube. 대전MBC. 우정욱. 분권화의 성공조건과 정부의 역할.
- YouTube. 대전MBC. 이해준. 한국역사속의 자치전통과 문화.
- YouTube. 이기우. 헌법과 지방자치의 관계.
- YouTube. 대전MBC. 박태원. 자치분권과 4차산업혁명.
- YouTube. 안동MBC. 장호순. 자치분권과 지역언론.

---

**권 자 경** : 연세대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로 행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지방자치와 국정관리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거래비용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결정요인과 성과”, “민주화 이후의 정부관료제: 정권별 관료문화 경향분석” 등이 있다.(E-mail: jkkwon@gwnu.ac.kr)

